

포토 갤러리 최재은 '노바디 데어-섬바디 데어'



최재은 '노바디 데어-섬바디 데어 (Nobody there-Somebody there)', C프린트, 118×79cm, 2014년작
/사진제공=한국화랑협회 화랑미술제

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빈집을 지키고 있던 꽃병의 꽃들이 수개월의 시간 속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. 제멋처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집주인 최재은 작가는 꽃들이 온몸으로 보여준 시간의 흐름을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. 작가는 말라 죽은 꽃들 사이에 새로운 꽃 한 송이를 꽂은 다음 카메라로 이를 찍기 시작했다. 시간이 흐르면 새 꽃도 시들었다. 그러면 작가는 또 다시 새로운 꽃을 꽂았다. 이는 거의 매일 반복됐다.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계속된 이 사진 작업은 겨울을 지내고 봄 빛이 찾아올 때까지 시간의 경과를 품게 됐다. 하나의 장면이지만 겨울과 봄,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풍경이 담겼다. 그는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미술가다. 오는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3회 화랑미술제 국제갤러리 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.

/조상인기자

ccsi@sed.co.kr